



동성애와 사상

이데올로기의 측면에서 본 68의 혁명 정신과 동성애 정치투쟁

1 히피는 왜 혁명의 중심세력이 되었는가?

한나 아렌트는 칼 야스퍼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1848년(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의 해)에서 배우듯 21세기의 아이들은 1968년에서 배울 것입니다”라고 썼다. 그녀의 예언대로 21세기 한국에서 벌어지는 탈원전, 동성애, 어린이 성교육, 낙태 등 환경과 인권 논쟁의 주제들은 68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

동성애, 탈원전, 포르노그래피에 준하는 학교 성교육 등은 중국공산당의 학살자 마오의 이미지와 양립 불가능해 보인다. 히피로 상징되는 마약, 록음악, 성해방의 일탈과 강제노역, 숙청, 감시와 통제로 상징되는 마오쩌퐁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우리는 현재 우리를 난처하게 만드는 인권으로 변장한 동성애 투쟁과 윤리과괴의 급진적 문화변혁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 이정훈 교수

서울대에서 법철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및 열정책연구원(ELI) 원장이다.

유럽과 북미에서 촉발된 68혁명은 일본의 급진적 학생운동을 비롯하여 지구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서구가 자랑하던 프로테스탄티즘의 영향으로 형성된 서구적 근대성의 해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문화혁명이라고 좌파들이 자부하는 이 혁명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68의 정신이 서구사회의 지적-도덕적 헤게모니를 장악해 가는 흐름 속에서 '체 게바라'로 상징되는 제 3세계 해방운동이 남미에서 전개된다. 쿠바와 중남미에서 무장봉기와 혁명이 발생하고 새롭게 유럽에서 전파되는 신좌파 사상과 함께 유럽의 젊은이들이 중남미 혁명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68이라고 부르는 혁명적 사유와 새로운 좌파 이데올로기는 반제국주의, 식민주의, 여성해방, 성해방 등을 내세우면서 급속도로 전 세계에 확산 되는 계기가 되었다.

21세기에는 EU와 캐나다가 이러한 정신과 이데올로기를 현실정치에서 제도화하여 사실상 혁명을 완성하는 단계에 이른다. 한국의 일부 정치세력과 추종자들은 빠른 속도로 이러한 흐름을 한국에 실현하고자 투쟁하고 있다.

어리석은 자들은 68은 그저 젊은 세대가 유럽에서 잠시 해방을 외친 해프닝 정도라고 그 영향을 축소하거나 문화혁명을 주장한 당시 젊은이들에게 마오쩌둥은 체 게바라처럼 그저 자신들이 주장한 혁명의 아이콘이었을 뿐 큰 영향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런 한심한 지식인들에게 반문해 보자. 촛불 집회에 참여한 열성적인 대학생들 중에 슬라보이 지젝의 철학을 달통하고 푸코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심지어 백두청송 위원회라는 중북단체 구성원들 중에 주체사상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몇 퍼센트나 되겠는가? 지배계급을 제외하고 북한의 농장 일꾼들이나 적대계층에 속하는 인민들이 주체사상이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을지 의문이다. 그럼 주체사상은 북한에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한 사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할 것인가?

젊은이들이 록음악에서 해방감을 느끼고 권위를 해체할 때 느끼는 짜릿함과 동성애와 성적인 문란이 정당화 될 때 경험하는 쾌락추구에 마오의 사상이 영향을 줄 리가 없다. 이들에게 마오와 68은 그저 해방의 상징일 뿐이다.

이러한 문화 현상이나 젊은이들의 행동 배후에 존재하는 황장엽과 같은 이데올로그들의 역할과 이데올로기가 형성하는 제도와 사회구조의 문제가 정말 심각하게 인간의 삶과 생활방식, 사고방식을 지배할 수 있게 될 때 이 지배력을 갖게 된 이데올로기를 지배이데올로기라고 부를 수 있다. 가령 조선 초 양반집 규수가 간통을 할 수 있지만, 이 간통을 권리로 주장할 수는 없다. 지배 이데올로기가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을 지배하는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한심한 지식인들의 무의미한 일부 논평들은 비판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데올로기와 연관이 없어 보이는 히피는 어떻게 68과 동성애 투쟁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일까? 미국의 버클리를 중심으로 발전한 히피문화가 강력한 문화운동으로 북미와 유럽의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다. 히피들은 반전과 평화주의, 기존 질서와 가치에 대한 반감, 쾌락주의와 신비주의에 빠졌다. 환각물질 체험을 통한 인간 의식의 해방, 집단 거주와 프리섹스, 동성애 및 페미니즘 옹호를 통한 성 해방, 록 음악과 축제적 삶의 지향 등을 꿈꾼 히피들의 생활혁명의 영역은 넓었다.

2 저항 이데올로기에서 지배 이데올로기화 된 68의 정신

현대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LGBTQ 정치투쟁으로써의 성소수자 옹호, 반전반핵, 페미니즘과 동성애 운동 등의 수많은 정치투쟁의 아이디어들이 히피들에 의해 모습을 갖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60년대 히피 운동은 68혁명의 강력한 동력이 된다. 북미와 유럽에서 걸프전 이후 반미정치운동과 이슬람 옹호활동을 벌이는 인사들이 주로 60년대 히피였던 점을 상기해 보면 히피문화는 사라졌어도 정치적 영향력은 신좌파의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사들이 추진하는 원전반대와 젠더에 기초한 성정치-성해방의 아이디어들은

사실 상 히피로 상징되는 68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히피문화와 베트남 반전운동을 통해 국제화되고 조직화 된 좌파단체들은 젊은이들을 통해 68혁명을 전 세계에 확산시켰다. 서구에서 20대였던 68세대가 성장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되었을 때 세계는 급진적으로 변화 되었다.

한국의 좌파들은 분단과 냉전 체제의 특수성으로 인해 68의 신좌파 사상보다는 ‘사회구성체론’과 ‘종속이론’ 등을 통해 유럽보다 더 투쟁적 성향이 강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반으로 한 반제국주의와 민중민주혁명 이론에 빠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진 세력이 남한을 식민지로 규정하고 ‘미-일 동맹’의 제국주의를 타도하자는 노선을 따르면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저항 이데올로기로 수용하게 된다. 전대협이 중시세력이 된 NL이 민족을 강조하는 배경은 김일성주의를 추종하기 때문이다. 반제국주의 투쟁은 동일하지만 민족보다는 정통 레닌주의에 기초해 ‘계급투쟁’을 강조한 노선이 바로 PD이다. 트로츠키처럼 국제 공산주의를 강조하는 흐름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한국의 PD는 오히려 민족주의와 주체사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사실상 김일성주의는 한국의 젊은 좌파들을 지배했다.

구소련이 붕괴하고 동구가 무너지면서 방황하던 21세기 한국의 좌파들은 유럽의 68로

1 크리스티앙 생-장-폴랭, 『히피와 반문화 : 60년대 잃어버린 유토피아의 추억』, 문학과지성사, 2015 참조하면 이해가 쉬워 진다.

상징되는 신좌파를 대안으로 여기게 되었고, LGBTQ 동성애 정치투쟁을 ‘인권운동’으로 전환해 세력결집에 성공한 유럽의 신좌파 노선을 추종하게 된다. NL과 PD였던 소위 386 세대가 한국사회 각 분야의 주축이 되자 과거 유럽이 겪었던 것과 같이 한국에서도 기존의 해계모니에 대한 저항이데올로기였던 68의 신좌파 사상은 지배이데올로기화 되어 간다.

3 68혁명의 전개와 영향

이제 68혁명의 전개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자. 상술한 바와 같이 68은 단지 프랑스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었다. 전 세계적 현상이자 철학과 사상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 재편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었다.

2008년에는 한국에서 68의 40주년을 기념하는 좌파언론과 지식인의 글들이 폭발적으로 발표되었다. 2011년 월가 시위가 확산되자 『한겨레21』은 “68이 재현되는가?”라는 기대를 대서특필했다². 한겨레의 기대와 다르게 월가 시위의 불꽃은 꺼졌다. 68혁명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잉그리트 길허홀타이(Ingrid Gilcher-Holtey)³의 저서를 중심으로 68혁명의 과정과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

2 한겨레21 2011년 10월 17일자.

3 잉그리트 길허홀타이(Ingrid Gilcher-Holtey), 정대성 역, 『68혁명, 세계를 뒤흔든 상상력』, 창비, 2009. 이 책외에도 연구서들이 있다. 오제명 외, 『68 세계를 바꾼 문화혁명 :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길, 2006. 리하르트 파버, 에이하르트 슈텔링/정병기 역, 『상상력에 권력은: 1968 혁명의 평가』, 메이데이, 2008 참조.

해 보자.

① 국제적 좌파연대

베트남전에 대한 반전운동을 통해 미국의 ‘민주사회학생연합’과 유럽(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서독)의 뉴 레프트 운동 등의 좌파 단체들이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치투쟁에서 연대하게 되었다. 반전운동은 미국의 흑인민권운동과 결합하면서 규모가 확대된다. 혁명가 “체 게바라”가 운동권의 영웅으로 등장하면서 반제국주의 · 반자본주의 정치투쟁의 강령이 형성되었다.

미국의 좌파들이 반전운동을 하면서 징집을 피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고 이들이 현재 미국을 위협에 처하게 하는 좌파 교수들이 되었다는 진단이 있다⁴. 이슬람을 옹호, 다문화선전, 동성애 정치운동에 헌신하는 좌파 교수들은 학생들을 자신들의 좌파 사상으로 물들이고 있다. 실로 68혁명의 21세기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② 프랑스 낭테르 대학 사건

1968년 남학생의 여학생 기숙사 출입금지 (성별 분리) 규정에 학생들이 반발하면서 반항이 시작되었다. 주동자인 다니엘 콘벤디트(‘콩방디’로 읽기도 한다. 독일계 유대인 유학생)가 청년의 성문제를 체육청소년부 장관 프랑쉴루아 미쎈에게 항의하면서 저항했다.

4 데이빗 호로비츠 (David Horowitz), 미국의 가장 위험한 학자 101명 (The Professors : The 101 Most Dangerous Academics in America), (Regnery Pub Co, 2006)

대학시설을 점거하고 농성을 했는데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와 콘벤디트가 토론하게 되면서 콘벤디트는 시위와 투쟁의 아이콘이 된다.

학생들은 좌파운동의 중심이었던 레닌주의를 거부하고 저항의 지도부를 따로 구성하지 않았다. 탈중심적·탈권력적 운동이 진정한 투쟁이라는 강령 하에 시위와 점거를 확산시킨다. 5월에는 파리 전체에 시위가 확산되었다. 노동계의 총파업이 시작되고 노동계와 학생 운동권의 연대와 분열이 시작 된다. 좌파들은 프랑스 사태가 시작된 낭떼르 대학을 68의 성지라고 부른다.

3 마오쩌둥의 부상

미국,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의 점거 시위 학생들은 마오쩌둥을 자신들의 영웅으로 세우고, 그의 해방구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1966년에 마오의 혁명동지 ‘린 빠오’가 가려 뽑은 『마오어록』은 1968년 파리에서 삼시간에 10만부가 팔려 나가면서 시위 학생들의 경전이 되었다.

4 레지스 드브레와 같은 혁명가의 탄생

미제국주의로 상징되는 현대적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와의 투쟁을 위해 남미에 가서 혁명에 가담하는 유럽청년들이 등장했다. 프랑스의 레지스 드브레는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의 주목을 받을 정도로 열렬한 혁명가가 되었다. 루이 알튀세르의 철학에 매료되어 혁명가가 된 드브레를 통해 네오 마르크스주의, 후기구조주의, 포스트모던 철학의 급진성과 위험성을 짐작할 수 있다.

5 아버를 죽인 독일의 68혁명

네오 마르크스 사상가로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대표하는 테어도어 아도르노를 비난하고 모욕하는 것으로 상징되는 독일의 68혁명을 좌파들 스스로 “아버를 죽인 혁명”이라고 부른다. 좌파들의 스승이었던 아도르노를 실천하지 않는 지식인으로 지목하여 모욕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저항이 시작되었다. 모든 권위에 저항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투쟁은 (근대와 근대적 권위를 상징하는) 스승도, 대학도, 정부도 저항의 대상이 되었다.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가 봉쇄되는 사태로 발전했다.

6 삶의 영역에서 정치적인 것의 발견 : 루이 알튀세르와 마오의 만남

마오의 문화혁명은 반권위주의 (교수를 모욕하는 대학생으로 상징되는 혁명적 태도), 평등주의, 구좌파의 경직성(마르크스 교조주의) 극복 외에도 서구 좌파들에게 매우 매력적이었다.

마오의 문화혁명은 “존재가 의식을 창출하지 않고, 의식이 정치적 행동을 매개로 존재를 각인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만으로 혁명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 이데올로기적 영역에서도 계급투쟁이 절실하다. 엄격한 토대 · 상부구조 도식을 근거로 한 교조적 서구 마르크스주의 지식인들이 회의에 빠져있을 때 유럽의 좌파들에게 마오의 사상은 복음과도 같았다. 루이 알튀세르 이론의 추종자인 예일대의 좌파 사회학자 제프리 알렉산더(Jeffrey Alex-

ander)가 “마오의 관념이나 사상은 동방에서 서광이 비치는 것과 같았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러한 차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루이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 이론은 마오이즘과 상통한다. 파리고등사범학교의 철학자이자 프랑스 공산당원인 알튀세르는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이론을 발전시켰다. 교회, 학교, 교육기관(대학), 노조, 정당, 가족, 신문, 매스미디어 등이 이런 기구이다.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가 생산 및 권력 관계에서 정부, 군대, 경찰, 관료제, 법원, 감옥과 같은 ‘억압적 국가기구’를 뒷받침 한다.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은 각자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낸다. 이데올로기 경쟁이 세계관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 이데올로기는 인식의 변화를 거쳐 사상과 실천의 변화로 이어지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제 철학적인 측면에서 “이데올로기” 투쟁이 시작되는 것이다⁵.

물적 토대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데올로기가 생각과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지배하는 것이다. 마오의 ‘문화혁명적 이론’은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론과 이런 차원에서 결합하여 부수적 효과들을 발생시켰다. 사실 마오의 문화혁명은 권력투쟁의 상황에서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한 마오의 술수에 불과하였는데 유럽에 와서 68혁명을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유럽의 좌파들이 ‘마오이즘’에 의미를 부여해 주

게 된다.

프랑스의 마오주의자들은 주로 알튀세르 학파에서 나온다. 그들을 ‘알튀세르의 병사’라고 불렀다. 마오와 루이 알튀세르의 만남으로 세계를 뒤집어엎는 문화혁명은 절정에 달하게 된다. 이 때 알튀세르를 중도적이라고 비판한 진정한 마오이스트임을 자칭한 알랭 바디우도 등장하게 된다. 현재 한국의 좌파 이론가들은 알랭 바디우를 교주와 같이 신봉하고 있다.

알튀세르는 프랑스 공산당을 선도하는 이론가였다. 그의 철학은 마르크스와 프로이트에서 출발한다. 조울증을 앓다가 1980년 아내를 정신착란 상태에서 교살한다. 1990년 사망할 때까지 정신병원과 아파트에 갇혀 지냈다. 1971년 발표한 논문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들>은 주체에 대한 논의의 세계적 지형을 바꾸어 놓았고 특히 국가에 대한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7 마오쩌둥의 문화혁명⁶

미국의 중국사 전문가 모리스 마이스너는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은 인민공화국의 사회생활과 정치생활을 10여년(공식적으로 1966년 5월-1976년 10월)에 걸쳐 왜곡하고 지배한 중국사의 대재앙으로 평가한다. 중국현대사의 정치·문화적 대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5 루크 페레티, 심세광 역, 『루이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 엘피, 2014, 루이 알튀세르, 권은미 역, 『미래는 오래 지속된다』, 이매진, 2003, 루이 알튀세르, 김동수 역, 『아미앵에서의 주장』, 솔출판사, 1995, 루이 알튀세르, 백승욱/서관모 역, 『철학과 맑스주의』, 새길, 1996.

6 모리스 마이스너(Maurice Meisner), 김수영 역,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 2』, 이산, 2014 참조, 세계적인 마오쩌둥 연구서로는 프랑크 디뢰터의 명저 3권이 있다. 『마오의 대기근 : 중국 참극의 역사 1958~1962』, 열린 책들, 2017, 『문화 대혁명: 중국인민의 역사 1962~1976』, 『해방의 비극 : 중국 혁명의 역사 1945~1957』 참조.

마오의 문화혁명에 유럽의 청년들이 열광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지만 사실이다.

2천 년간 내려온 소농생산의 전통 속에 뿌리박혀 있는 봉건성이 대약진운동의 유토피아주의에서 드러나는 ‘극좌주의’를 창출했다고 모리스는 평가했다. 수 세기의 전통을 가진 봉건 독재가 혁명의 형태를 갖추면서 피해를 크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반지성주의의 광기에 의해 지식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프랑스 철학자들을 중심으로 유럽의 대학생들이 반지성주의의 광기에 심취했다는 것도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하겠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마오주의적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민이 올바른 사상과 의지로 무장한다면 어떤 물리적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으며 그들의 사상에 따라 사회현실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신앙이었다.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적 발전과 ‘객관적 법칙’에 대해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역사의 길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그리고 혁명 활동에 참가하려는 이들의 의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마오는 굳게 믿고 있었다.

인민에게 올바른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것, 이데올로기의 전환과 사상개조에 대한 강조는 바로 이러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사람이 기계보다 중요하다’는 금언이 혁명을 실현하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마오주의’의 원칙이었다. 기존의 레닌주의와도 다른 점은 레닌이 ‘자본주의가 남긴 모든 문화를 손에

넣어 그것으로부터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한 것을 마오는 부정했다. 마오는 물질적 생산력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공산혁명이 가능하다는 이론에 동의하지 않았다. 혁명의 전제조건은 사람들의 의식을 ‘프롤레타리아화’ 하는 ‘의식개조’이고 이 의식개조는 ‘문화혁명’이라는 수단으로 달성된다고 보았다.

의식의 개조를 강조한 그의 혁명노선은 구조주의 철학과 이론적 맥락에서 상통하는 면이 많았고, 알튀세르를 비롯한 프랑스 좌파 철학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68혁명의 영향으로 유럽의 젊은이들이 남미 좌파 혁명에 동참한 것도 ‘마오주의’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마오의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일부 좌파 지식인들은 레드 콤플렉스를 의식해서 자신들의 사상을 현실정치에서 관철시키고 추종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이데올로기의 본질과 역할을 왜곡하는 곡학아세를 했다고 볼 수 있다.

68의 혁명정신이 히피들의 일탈 행위를 뒷받침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기존의 질서와 체계 모니를 해체 시킬 수 있는 저항 이데올로기로 부상할 수 있었던 배경을 분석할 때 루이 알튀세르와 같은 철학자들의 학문 활동과 선동,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끼친 마오리즘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68세대가 정치, 경제, 대학 등 각 분야를 장악한 상황에서 68의 정신은 지배이데올로기로 전환되었다.

4 결론에 갈음하여 : 젠더 이데올로기와 성정치는 어떻게 좌파 투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가?

이제 위에서 학습한 내용을 성정치가 68혁명을 통해 정치투쟁의 중심이 된 상황에 적용해 보자. 68혁명의 진정한 의미는 이것이 ‘문화혁명’이었다는 점이다. 기존의 권위와 근대적 위계에 대한 저항과 이데올로기 투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남/녀, 제국주의/식민지, 지배/종속, 자본가/노동자 등의 근대적 ‘대립항’을 해체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정치는 더 이상 거시적인 제도의 차원을 넘어서 미시적인 생활세계의 문제, 즉 성관계(이성애와 동성애, 성역할 등)의 문제로 확장된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질서로 형성된 가정, 그리고 침실에서 이루어지는 ‘성’도 모두 정치적 관점에서 이데올로기 투쟁의 대상이 된다. 가부장제도와 이성애 중심의 일부일체제, 가족 등의 이데올로기들을 파괴하고 해체해야 진정한 해방이 이루어진다. 성별의 개념, 가족의 개념을 해체하고 재구성해야 한다. 정치투쟁과 혁명의 목적은 바로 성별의 해체와 전통적 가정의 해체를 통한 진정한 해방이다.

아울러 투쟁의 방식을 부르주아 자본주의 세계 자체를 타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체제 내에서의 이데올로기 투쟁으로 전환한다. 예를 들어, ‘시민권’이라는 부르주아 자유주의 정치체제의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동성애자가 시민권의 재편을 통해 이 시민

권의 범주로 포함되는 ‘시민권 재구성’의 투쟁으로 나간다는 것이다.

68혁명은 소수자 투쟁과 이 소수자들의 이데올로기 투쟁의 사상적 대전환이 되었다. 이런 구조에서 소외되고 억압된 자들의 해방을 위한 투쟁이 강화되고 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가 등장하여 급성장하게 된다. “소외”와 “타자화”에 대한 민감한 인식이 “관용”으로 이질적인 것을 포용한다는 인권사상으로 강화되었다. 불법이민에 대한 관용과 다문화주의는 유럽의 이슬람화를 초래하고 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 투쟁은 유럽을 동성애의 낙원으로 타락시켰다. 결국 프로테스탄티즘으로 구성된 서구의 근대성을 해체시키는 혁명이 불세비키 혁명보다 더 강도 높게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종교개혁 이후 서구에서 해계모니를 가졌던 기독교 윤리와 성도덕은 68의 혁명정신 이 지배 이데올로기화 되어가는 한국에서 저항 이념으로 부상하고 있다.